

‘불교적 인재’ 표상은 고요 · 화평 · 보시하는 사람

강사 : 조용현(원광대 동양학과 초빙교수)
일시 : 2009년 7월 14일
주제 : 사회적 인재와 불교적 인재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원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지를 걱정하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공자 <논어> ‘이인(里仁)편’에 나오는 명구이다.
 사람은 자신이 설 수 있는 근본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사람이 진정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면 언젠가는 황금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황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그중 영향력 있는 인재의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몇 배의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인재불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불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인지 조용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력

1961 전남 순천 생.
 원광대 불교대학원 불교민속학 박사.
 원광대 동양대학원 동양학과 초빙교수.
 조선일보 '조용현 살롱' 칼럼 연재.

#행복하려면 고요해야

현대사회는 삶의 수단이 모두 스피드(speed)인 것 같습니다. 대포나 비행기, 자동차, 통신 모두 속도경쟁입니다. 서양문명이 우리를 제압한 원인이 스피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지구 압박을 받으니 우리 어렸을 때는 없던 심장병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신문사 원고마감에 시달리느라 심장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 고민했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행복하려면 고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요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란 재벌이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고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 대통령도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전 대통령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화평하고 베풀 줄 알아야

불교적 인재는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요하려면 삶에 우선순위를 정해 천천히 가거나 많은 부분에 대해 과감한 포기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배양해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지고 중심이 잡히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고요해서 행복해진 모델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인재가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고 지위가 있는 분들을 보면 눈매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부자이지만 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재칠시(無財七施) 중에서 '안시(眼施)'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온화한 눈길에 따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해진다는 뜻처럼 눈이 화평한 사

람은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화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요즘은 그런 이를 찾아보기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차 마시며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불교적인 인재라면 그런 자연을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란 것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자연 그 자체가 사람한테 큰 위안을 주는 것이죠. 요즘 사회생활은 전부 긴장의 연속입니다. 현대인들이 환갑이 되어서 병 안 걸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사람이 슬픔에 잠겼을 때 치유해 주는 것은 자연과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약기소리가 깊은 슬픔까지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찰에는 자연과 인간의 육성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차를 마시면 고요함과 온화함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제대로 마신다는 것은 뱃속에 무언가를 채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차를 마시면 사람 몸에 기운이 도는 작용을 돕습니다.

또 다도는 단순합니다. 몸을 따르고, 끓이고, 물 끓는 소리를 듣고 찻잔을 만져보는 그 자체가 법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 없이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복잡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까지 살필 풍수도 알아야

불교 인재라면 풍수도 공부해야 합니다. 바람과 물



사회적 인재와 불교적 인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인재불사를 발원하는 불자들.



열강하는 조용현 교수.

긴장 내려놓고 차 한 잔의 여유 찾으면 온화해져 지혜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 차분하게 집중해야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자신의 컨디션이나 영적인 깨달음까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기운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술사들이 묘자리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영성을 위한 풍수 말합니다.

옛 조사님들께서 암자 터를 잡은 것을 보면 대단 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목이 아주 예술입니다. 터가 지닌 미묘한 조합을 보면 평균 30년은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축적된 전통의 힘이 있습니다. 발효된 데서 깊이가 나오고 성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소식 한 분'과는 밤 먹고 농담하는 것만도 큰 공부라 합니다. 축적된 전통에서 나오는 그 유한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풍수와 영적 성장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파트에서 도인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일러 방에서 자는 건 문제입니다. 잠에 깊이 들어 몸의 기운이 돌아야 하는데 등 밑에서 보일러 물이 돌고 있으니 자연적인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아랫목 구들장에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전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안온함이 남아 있는 곳이 전통 사찰들입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서양인들은 자연의 기감을 감지

하는 능력이 퇴화했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색체를 추구하는 문명입니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미신으로 여기고 믿습니다. 또 의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서 심장병이 생깁니다. 인간의 몸을 보면 정신을 알 수 있는데 비만인구가 많은 서양인을 보면 고상한 생각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관찰입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불교적 인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얻는 맛을 느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돈 되는 것만 가치를 두지 명상 등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 부영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집중해야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고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축구, 골프 등은 대단히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싸구려 취급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명문가에 가보면 기운이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현관의 신발만 보고도 영적인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박선주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약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제)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인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종문 3종정보 특헌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진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